

2023년 경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차 공모 심 의 총 평

2차 공모에 지원한 팀들의 다양한 장르 지원이 돋보였습니다. 지원서들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지원팀들의 예술적 전문성이 예술교육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10년 이상 현장에서 유아들과 작업한 팀의 경우 프로그램의 구체성과 매뉴얼의 안정이 장점으로 돋보일 수 있으나, 유아라는 대상의 독특성에 주목해볼 때, 즉흥성과 유아의 주체성, 놀이적 특성을 반영한 열린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의 특성상 도예 분야에서 지원하는 예술교육 단체들이 많습니다. 도자/도예/공예 교육의 체험프로그램의 창조적 접근이 모색되기 위해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예술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의 역량 강화가 문화재단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년간 지원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전문성이 유아 대상자와 아티스트 간의 진실한 소통을 통한 주제의 변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보여집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에서 유아의 대상적 특성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때 그 전문성은 수업의 짜여진 노하우와 교육적 목표보다는 경험자의 주체적 참여와 창조 과정에 더 의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사업들과 같이 예술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공모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지원방식이 아니라 그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전 워크숍의 마련, 공모지원 방식의 창의적인 모집 방식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선정된 단체들의 경우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열의가 프로그램으로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아티스트로서의 고민이 있어 사업선정 이후 역량 강화 워크숍 단계에 해당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재단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심의위원 : 조재경, 김성제, 양혜정